8일(현지시간)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왼쪽)과 체코 대표팀. 연합뉴스

홍명보호, 첫판 체코 잡고 '꽃길' 선점할까

조 1·2위 무난한 대진, 3위는 '가시밭길'… 1차전 분수령
체코, 190㎝ 이상 10명 장신 군단… 공격수 시크 요주의
스리백 수비+손흥민·황희찬·이강인 삼각편대 가동할 듯

2년을 달려온 홍명보호가 드디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운명의 첫 판을 치른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유럽의 복병 체코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갖는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한 조인 한국은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은 두 대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을 겨냥한다.

만약 3위로 32강에 오르면 E조 1위나 G조 1위를 상대해야 한다. E조에는 전통의 우승 후보 독일, G조엔 강호 벨기에가 버티고 있다.

반면, 조 1, 2위로 32강에 오른다면 훨씬 무난한 대진을 받는다. 1위를 하면 다른 조 3위, 2위로 진출하면 B조 2위를 상대한다.

B조에는 캐나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카타르, 스위스가 있다. 뚜렷한 강팀이 없는 조다.

조별리그 1·2위가 '꽃길'이라면 3위는 '가시밭길'인 셈이다.

첫판에서 승리해야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월드컵에서 첫 경기는 절대적인 분수령이며, 그간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첫 경기에서 지고도 16강에 오른 적은 없다.

체코는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복병이다. 유럽예선에서 약체 페로제도에 '충격패'를 당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으나 미로슬라프 코우베크 감독으로 사령탑을 교체한 뒤 안정을 찾았다.

아일랜드와 덴마크를 상대한 플레이오프에서는 두 팀 모두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승부차기로 무너뜨리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기술보다는 투쟁심, 체격을 앞세운 팀이지만, 공격진에는 레버쿠젠(독일) 소속의 '주포' 파트리크 시크, 파벨 슐츠(리옹) 등 걸출한 개인기를 갖춘 카드들이 있다.

특히 시크는 유로 2020에서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하프라인 중거리골을 터뜨렸을 정도로 정확한 득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키 190㎝ 이상 선수가 무려 10명이나 되는 체코는 세트피스나 크로스를 활용한 '고공 공격'에 강한 모습을 보인다. 김민재(뮌헨)를 비롯한 홍명보호 스리백 수비진이 이를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도 관건이다.

홍명보호 공격진에서는 '불세출의 골잡이' 손흥민(LAFC)이 선봉에 서고, 황희찬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좌우 측면 공격을 맡을 거로 보인다. 연합뉴스

체코전 심판진 발표… 주심 이집트 변호사

"체계적·정확한 판정, 경기 흐름 유지 성향"

홍명보호가 체코와 치르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휘슬을 이집트 변호사 출신 심판이 분다.

FIFA는 9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체코전 심판진을 발표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른다.

경기 주심은 이집트의 아민 모하메드 오마르(40) 심판이 맡는다.

축구 이적 및 통계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마르크트 등에 따르면 오마르 심판의 직업은 변호사다.

오마르 주심은 2013년부터 이집트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심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 FIFA 국제심판 자격을 획득했다.

북중미 월드컵 한국-체코전 심판진. 연합뉴스

월드컵 무대는 처음이지만 2019년 브라질에서 열린 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 참가했고, 코트디부아르에서 치러진 20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AFCON) 개막전 주심을 맡는 등 아시아축구연맹(CAF)이 신뢰하는 심판이다.

스포츠매체 스포르티아우라는 오마르 심판에 대해 "변호사처럼 체계적이고 정확한 판정을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마르 심판의 가장 큰 강점을 "위치 선정과 어드밴티지 룰을 지능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으로 꼽고는 "모든 접촉마다 휘슬을 불기보다는 경기 흐름을 유지하려는 그의 의지는 진정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주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 '정상'

지난 5~7일 금악활공장 일원 전국 12개 시·도 비행 겨뤄

제주특별자치도 활공팀이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에서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패러글라이딩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제주시 금악활공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제주팀은 총점 8172점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9174점으로 준우승, 경기도가 1만3163점으로 3위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개인 부문은 조종사부 이수명(세종특별자치시), 상급조종사부 이인석(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부 김주아(강원특별자치도), 마스터부 노충환(부산광역시), 전문선수부 박준석(강원특별자치도)이 각각 정상에 올랐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개 시도 선수들이 참가, 단체부 등 총 6개 부문에서 정확한 착륙 기술과 비행 능력을 겨루며 국내 패러글라이딩 최강자를 가렸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패러글라이딩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따낸 제주도 활공팀(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패러글라이딩협회 제공

'셔틀콕 최강' 연동클럽 제주시협회장기 우승

제주시 연동배드민턴클럽이 제주시협회장기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27회 제주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는 제주시배드민턴협회 소속 63개 클럽의 임원 및 선수 등 8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 결과 연동클럽(회장 양시복)이 종합점수 3300점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신제주클럽(회장 이정훈)이 종합점수 2350점으로 준우승, 다올클럽(회장 강석환)이 종합점수 2200점으로 3위에 올랐다.

연동클럽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에서도 1부리그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제주 셔틀콕 최강자임을 과시했다.

제27회 제주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우승을 차지한 연동클럽.

이번 대회에는 제주시배드민턴협회와 22년간 우정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수원시배드민턴협회(회장 최원영) 방문단도 대회에 참가해 양 도시 동호인 간 화합과 친선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윤배 제주시배드민턴협회장은 "앞으로도 배드민턴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10(수)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길 코드네임 348104(재)	6:05 TV 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3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간극장 스페셜 11: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첫 번째 남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11:45 쥬라기캅스 4(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플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8:20 어린 철학자 9:20 미리 가본 대학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왔다! 내 손주 13:25 EBS 평생학교 16:55 수상한 방송국 17:2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Z 17:50 처음 배우는 AI 19: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14:00 KBS 뉴스 14:10 열린채널 14:50 제6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35 미니시리즈 심우면 연리리(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마카앤로니 3(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영상앨범 산(재) 17:00 강치 아일랜드 2 17:15 청춘블라썸 17:30 꿀잼 영화가 좋다	12:00 12 MBC 뉴스 12:25 앙코르 특집 MBC 다큐프라임 13:25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45 위시캣 매직카드 13: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14:00 뉴스브리핑 15:30 애니갤러리 16:00 네모세모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테마스페셜(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지역 소멸 극복 프로젝트 우리 동네 20:30 일일드라마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기획 다큐 인사이트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0 슈퍼캐치 진실의 눈 22:50 누난 내게 여자야 2 1~3회 몰아보기	18:05 오늘N 19:05 첫 번째 남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소라와 진경 스페셜 22:30 라디오스타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헌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50 법륜로드 스님과 손님(재)	

KCTV

9:00 KCTV 9시 뉴스
9:50 수중올레
11:00 KCTV 11시 뉴스
11:20 KCTV 스페셜
12:20 앙코르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13:30 삼춘 맹심헙서예
15:00 영상기록 제주 420
15:30 수중올레
16:30 KCTV 스페셜
17: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제주CBS FM 93.3MHz 90.9MHz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어떤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환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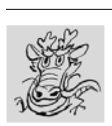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다. 48년 세무조사나 위생 검열 등 과태료가 있어 스트레스. 60년 투자, 투기 등 과욕은 금물. 경제관념이 중요. 창업·개업은 심사숙고. 72년 활달하고 명랑함이 오히려 대인관계에 경거망동으로 보일 수 있으니 언행 조심. 84년 외모에 관심을 갖고 지출이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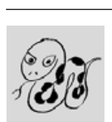
37년 과격한 언행은 내 몸을 상하게 한다. 여유와 너그러운 생활습관이 필요. 49년 평소의 방식을 변경하면 불리하니 기존 방식을 유지하라. 61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니 모진 말은 삼가할 것. 73년 인간관계에서 인정을 받고 인기도 많다. 85년 자격증은 미래 직업으로 연결된다. 최선을 다하라.

38년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온다. 집안에 화목 또는 길사가 찾아온다. 50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을 인정받는다. 62년 여유가 필요하고 신중함이 필요하다. 서두르면 실수가 생긴다. 74년 자존심과 독단은 대인관계를 어렵게 한다. 부부관계는 사랑과 배려가 최선. 86년 시험이 있다면 신중함을 가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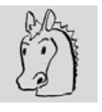
39년 답답하게 안풀리던 일이 점차 해소된다. 51년 내 뜻대로 되지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실속없이 분주하다. 63년 취업 또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쁜 소식이 오기도 한다. 75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줄 것. 87년 동료에 의해 피해가 오니 신경을 쓰고 주의하라.



40년 가정의 화합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안식처 가정이 최우선. 52년 내 손과 발을 상대는 필요로 한다. 내 도움을 나눠 줄 일이 있다. 64년 자녀일로 즐거움도 있지만 금전 지출도 있다. 76년 내 주장을 내세우면 상대가 나를 멀리한다. 88년 직장, 취업, 학교의 소식이 있다. 최선을 다해 경주하라.



41년 온천욕이 피곤한 마음을 만족시킨다. 53년 문서 매매 이동 등의 일이 생기고 자식건은 좋은 일이 있다. 65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는듯 하다 방해자가 생긴다. 77년 비온 뒤에 하늘이 청명하듯이 서서히 회복되니 마음을 비워라. 89년 마음먹은 일이 안 풀리면 여행을 하거나 서점에서 쇼핑하라.



42년 아랫사람이 자문을 구하면 흔쾌히 받아줄 것. 54년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 소송건에서는 불리하니 타협점도 생각한다. 66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방해자가 되거나 이성으로 고민이 생긴다. 78년 진퇴양난의 입장이 오면 윗사람과 상의해 일을 해결하는게 좋다. 90년 집안에 재물이 쌓이는 형국.

43년 식장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기쁨도 있다. 55년 신용을 잃으면 회복이 어렵다. 대인관계를 넓혀라. 67년 기혼자는 가정에서 논쟁, 미혼자는 이성간 불화가 오고간다. 79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로 언쟁을 하니 참으면 해소된다. 91년 거절을 당하거나 일이 중도에 멈출 수 있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말 것.

44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56년 융통성이 없으면 대인관계를 넓히자. 68년 직장인은 명예 또는 상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고과점수에 반영. 80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어라. 안풀면 골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92년 의욕이 증가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

45년 한마디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하니 언행자제. 57년 남의 것에 관심이 많으면 구설이 따르고 자녀 일에 관심을. 69년 인간관계에서 모함 또는 시기·질투가 생기니 참견하는 일은 자제. 81년 재물에 대한 손실이 있으며 마음이 불안 초조하다. 이성관계 불화. 93년 나의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46년 계약 매매 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58년 동업시 언쟁을 조심해야. 기득권을 가지고 논쟁도 한다. 70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82년 외모에 신경을 쓰고 가꾸려 한다. 머리,옷에 지출하게 된다. 94년 형제의 화합과 건강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다. 친구의 소식을 접한다.

47년 수입이 생기고 전문직은 바쁜 일이 생긴다. 59년 주면 오는 것이 있으니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단체봉사에 참여하기도. 71년 돌탑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목적 달성이 근간에 와 있다. 83년 희망이 생기고 의욕이 충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라. 95년 친구들의 만남이 흥겹고 대화가 즐겁다.